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20, VOL. 33, No. 1

medicalhistory.jams.or.kr
https://doi.org/10.15521/jkmh.2020.33.1.001

동의보감·내경편 독활(獨活)의 용법을 통해 본 한의학 기초와 임상의 연계 교육 방안

[1]홍지성, [2]강인혜, [3,4]이영미, [5]이훈연, [6,7]강연석

[1]한국한의학연구원, [2]광덕안정한의원, [3]원광대학교 한약학과, [4]원광한약연구소
[5]원광허브, [6]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7]전통의학연구소

Bridging Basic Knowledge and Clinical Practice in the Education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 case of *Pubescent Angelica* usages in Internal Bodily Elements section,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1]Jiseong Hong, [2]Inhye Kang, [3,4]Youngmi Lee, [5]Hoon-Yeon Lee, [6,7]Yeonseok Kang

[1]*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Gwangdeok Anjung Korean Medicine Clinic,*
[3]*Dept. of Oriental Pharmacy, Wonkwang University,* [4]*Wonkwang Oriental Medicines Research Institute*
[5]*Wonkwang Herb Co., Ltd.* [6]*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7]*Research Center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Pubescent Angelica is generally used in musculoskeletal diseases of lower extremity, itching, external contraction (外感) and furuncle, with the effect of dispelling wind, draining dampness, dispersing the external (解表) and stopping pain.

The disease parts of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東醫寶鑑) contain 121 examples of the usage of Pubescent Angelica. Cases of musculoskeletal diseases and itching are mainly in the External Bodily Elements section (外形篇), and those of external contraction and furuncle are mainly in the Miscellaneous Disorder section (雜病篇). Internal Bodily Elements section (內景篇) has 10 prescriptions that involve *Pubescent Angelica*, in Dreams (2), Voice (1), Uterus (4), Parasites (1), and Feces (2) chapters. Their specific symptoms are insomnia and sleep paralysis (Dreams), loss of voice due to external contraction (Voice), uterine hemorrhage (Uterus), phthisis (Parasites), and constipation and diarrhea (Feces).

It is not easy for students beginning their clinical training to link the effects of *Pubescent Angelica* and its actual usage, especially in the area of internal medicine. By Analyzing the whole cases of *Pubescent Angelica* in the *Treasured Mirror*, we found various usages out of reach of basic knowledge of the herb.

Such method can be utilized not only in developing herbal knowledge-based products, but also in improving Korean medicine education, by enhancing the occupational competency bridging basic and clinical knowledge.

Key words : Korean medicine education, clinical occupational competency, Dongui Bogam, history of medicine, Pubescent Angelica

Ⅰ. 서론

독활은 한의사가 수행하는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문제를 치료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약재이다. 제2차 한의사 직무분석(2014)에서는 한의사가 다루는 질환의 빈도와 중요도를 조사[1)]하였는데, 진단 및 치료영역에서 다빈도로 다루는 질환은 골관절염, 유착성관절낭염, 근막통증증후군의 진단과 치료로 나타났다.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 염좌, 유착성관절낭염,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근막통증증후군, 골절, 관절증, 척추증 진단 및 치료하기 영역이 높게 나타났다. 한의사 직무현장에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만큼, 이를 치료하는 대표 약재 중 하나인 독활의 활용법은 교육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접수▸2019년 10월 21일 수정▸2020년 05월 25일 채택▸2019년 11월 19일
교신저자▸ 강연석,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 063-850-6984 E-mail : yeonkang@wku.ac.kr

1) 김기봉, 김장현, 임병묵, 신병철, 신상우, 김근우 외.「한의사 2차 직무분석연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14.

독활은 대다수의 본초 교재에서 거풍습지비통약(祛風濕止痺痛藥)의 대표 약재로 손꼽히며, 거풍제습(祛風除濕), 해표지통(解表止痛)의 두 가지 효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기술된다. 한의시맨틱검색[2]은 한의과대학에서 사용하는 본초[3], 방제[4], 한방병리[5] 및 임상 각과[6]의 교재들을 망라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독활은 관절의 운동제한[關節屈伸不利], 머리와 몸의 통증(頭痛身痛), 무릎과 허리 통증[腰膝疼痛], 저리고 아픈 증상[風寒濕痺] 및 오한(惡寒)과 발열(發熱)을 치료하는 것으로 기술되며, 주요 본초 교재에서도 대동소이하다.

『동의보감』 탕액편(湯液篇)에는 온갖 "적풍(賊風)과 전신의 관절에 생긴 통풍을 갓 생긴 것이나 오래된 것에 관계없이 모두 치료한다. 중풍으로 말을 못하는 것, 구안와사, 반신불수, 온몸에 감각이 없는 것, 근육과 관절 부위에 경련이 일면서 아픈 것을 치료[7]"한다고 하여, 거풍제습 및 해표지통의 효능과 일맥상통하는 주치증을 기술하고 있다.

『동의보감』의 다섯 편 중 내경(內景), 외형(外形), 잡병(雜病)은 각각 인체의 부위[8]에 따라 보이지 않는 부분의 질병, 겉으로 드러난 부위의 질병, 그리고 전신의 질병을 구분[9]하여 서술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학고전DB[10]에서 "독활"을 검색해보면 『동의보감』에만 모두 121회 사용된다. 이 가운데 탕액편, 중복되는 것, 다른 약재를 설명할 때 언급되는 것을 제외하고 내경, 외형, 잡병에만 모두 103건의 처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103건의 처방은 22종의 의서에서, 즉 東垣 19건, 入門 15건, 醫鑑 12건, 得效 10건, 丹心 8건, 正傳, 回春 각 7건, 本草 4건, 寶鑑, 局方, 本事, 河間, 活人, 直指, 類聚 각 2건, 仲景, 宣明, 御藥, 易老, 精義, 綱目, 醫林 각 1건 인용되었다.

독활의 대표효능 중 거풍제습은 외형편이나 잡병편의 각종 통증과 연관이 있고, 해표지통은 육음에 해당되는 풍한서습조화 또는 거풍제습 효능과 연결된 통증 질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그러나 103건의 치료경험 가운데 10건은 인체의 내부 질병을 다루는 내경편에 배치되어 학생들에게는 의서 내에서조차 기초과목인 본초 지식과 임상 지식 간의 연계 맥락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최근 의학교육 현장에서 임상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기초의학과 연결지어 사고하거나 암기하고 지나갔던 기초학 지식들을 임상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별화, 맥락화된 특성"을 존중하는 의학 및 한의학교육의 트렌드가 강조[11]되고 있다.

한의학 교육분야에서도 한의학교육 역시 직무역량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12][13][14], 한의학교육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의생명과학과 전문직업성 교육을 강화하자는 것[15], 다양한 교수법[16]이나 컨텐츠[17]를 활용하자는 것 등이 논의되어왔다. 의사학 및 원전학 등 기초문헌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들은 한문 독해 및 방대한 분량의 학습량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이[18] 지적되어 왔으며, 학습

2)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시맨틱검색(https://cis.kiom.re.kr/semantic). 2019.05.01.
3) 전국한의과대학 본초학공동교재 편찬위원회. 『본초학』. 서울:영림사. 2008.
신민교. 『임상본초학』. 서울:영림사. 1997.
신길구. 『신씨본초학』. 서울:수문사. 1988.
4)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수 공편저. 『방제학』. 서울:영림사. 2008.
윤용갑. 『(도해증보) 동의방제와 처방해설』. 서울:의성당. 2007.
신민교 편저. 『방약합편』. 서울:영림사. 2003.
5) 한방병리학 교재편찬위원회. 『한방병리학』. 한의문화사. 2009.
6) 전국한의과대학 간계내과학 교수 공저. 『간계내과학』. 동양의학연구원. 2001.
전국한의과대학 심계내과학 교실. 『심계내과학』. 군자출판사. 2008.
전국한의과대학 비계내과학 교실. 『비계내과학』. 군자출판사. 2009.
전국한의과대학 폐계내과학 교실. 『폐계내과학』. 나도. 2007.
두호경. 『동의신계학』. 성보사. 2006.
7) 療諸賊風, 百節痛風, 無久新者. 治中風失音, 喎斜癱瘓, 遍身瘻痺, 及筋骨攣痛.
8) 김남일, 요시다 가즈히로, 사카이 시즈, 강연석, 김호, 김성수 외. 『동의보감의 지식 체계와 동아시아 의과학』. 성남: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6:18-20.
9) Kang Yeonseok.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edicine Based on Time Classification」. China perspectives. 2011;3(87):33-41.
10)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고전DB(https://mediclassics.kr). 2019.05.01.
11) 신익균, 정욱진, 박이병, 박귀화, 유찬종, 박정율 외. 『의학교육의 개혁과 미래』. 서울:학지사. 2014.
12) 임철일, 한형종, 홍지성, 강연석. 「2016 한의사 역량모델 정립 및 활용 방안」. 대한한의학회지. 2016;37(1):101-113.
13) 홍지성, 강연석. 「북미 의학교육 사례가 한의학 교육에 주는 시사점」. 한국의사학회지, 2018;31(2):91-101.
14) 신상우, 박종배. 「국제적인 의학교육 역량체계 비교를 통한 한의학교육에의 시사점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7;31(1):36-45.
15) 홍지성. 「재구조화 관점에서 본 역량중심 한의학교육: 의생명과학과 전문직업성 교육의 강화」.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6) 최정빈, 김용진. 「Flipped Learning을 통한 원전학 교육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8;31(2):1-16.
17) Junyeop Lee, Ji Han Han, Min Seong Kim, Hwan Seong Lee, Sang Yun Han Soo Jin Lee, et al. 「Teaching Yin-Yang biopsychology using the animation, "Pororo the Little Penguin"」.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2020;33:101037.

medicalhistory.jams.or.kr
https://doi.org/10.15521/jkmh.2020.33.1.001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한의사의 사회적 역량 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19], '임상과의 연계'된 강의[20]와 평가 방법의 중요성[21]이 제안되어왔다.

임상과 연계된 기초교육을 위해서는 오래된 고전보다 후대에 작성된 의학입문, 경악전서 등 종합의서를 활용하는 유용하며, 본 논문에서는 한의학의 표준으로 활용된『동의보감』속 독활의 활용 예를 전수 조사하여 각각의 질병 상황에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향후 이를 통해 임상실습 교육 전 기초한의학 지식을 임상의 맥락으로 이해하고 토론하는 교육자료를 만들거나, 다양한 제품 개발의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고한다.

Ⅱ. 본론

1.『동의보감』의 편재와 독활의 활용

한의학고전DB를 통해『동의보감』에서 '獨活'을 검색하면 아래 표1의 세부 목차 중 음영표시를 해둔 세부 목차에서 검색됨을 알 수 있다. 독활은 내경편의 夢, 聲音, 胞, 蟲, 大便, 외형편의 頭, 眼, 耳, 鼻, 牙齒, 頸項, 腰, 皮, 手, 足, 前陰, 後陰, 잡병편의 風, 寒, 火, 內傷, 積聚, 浮腫, 黃疸, 溫疫, 癰疽, 諸瘡, 救急, 婦人, 小兒에서 활용된다.

표 1.『동의보감』의 편재와 독활을 활용하는 문

편명	목차																										
內景篇	身形	精	氣	神	血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飮	五臟六腑	肝臟	心臟	脾臟	肺臟	腎臟	膽腑	胃腑	小腸腑	大腸腑	膀胱腑	三焦腑	胞	蟲	小便	大便
外形篇	頭	面	眼	耳	鼻	口舌	牙齒	咽喉	頸項	背	胸	乳	腹	臍	腰	脇	皮	肉	脈	筋	骨	手	足	毛髮	前陰	後陰
雜病篇	天地運氣	審病	辯證	診脈	用藥	吐	汗	下	風	寒	暑	濕	燥	火	內傷	虛勞	霍亂	嘔吐	咳嗽	積聚	浮腫	脹滿				
	消渴	黃疸	痎瘧	溫疫	邪祟	癰疽	諸瘡	諸傷	解毒	救急	怪疾	雜方	婦人	小兒												
湯液篇	湯液序例	水部	土部	穀部	人部	禽部	獸部	魚部	蟲部	蹂部	菜部	草部	木部	玉部	石部	金部										
鍼灸篇	鍼灸																									

2.『동의보감』각 문에 해당되는 독활의 용례

이 가운데 외형편에서 다루는 頭痛, 눈의 內障, 腎膜, 각종 眼病, 귀의 耳重聽, 코의 鼻塞, 치아의 動搖, 項强, 挫閃腰痛, 瘀血腰痛, 痲木, 肩臂病, 臂痛, 脚氣, 鶴膝風, 陰囊濕痒, 腸風臟毒의 병증들은 모두 거풍제습, 해표지통으로 표현되는 독활의 효능으로 쉽게 포괄할 수 있다.

잡병편에서 다루는 風病의 精神蒙昧, 口眼喎斜, 手足癱瘓, 中風熱證, 中風虛證, 기타 풍증, 痺證, 歷節風, 破傷風, 상한의 兩感傷寒, 傷寒表證, 火病의 五心熱, 내상의 勞倦傷 및 食後昏困, 積聚, 水腫, 黃疸, 瘟疫, 癰疽, 流注骨疽, 疔疽, 大風瘡, 結核, 人面瘡, 陰蝕瘡, 각종 惡瘡, 鬼魘, 임신 중 子癇, 출산 후의 風痓, 소아의 癲癇, 각종 熱證, 龜背龜胸의 병증들도 마찬가지로 거풍제습, 해표지통이라는 효능으로

18) 백유상, 김남일.「원전의사학 교육에 대한 한의과대학 학부생의 의식조사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23(3):111-125.
19) 김남일.「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사학 교육과 연구」. 2018. 06. 한국의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
20) 오재근.「조선의관 허준의 임상의학 사유 엿보기: 동의보감에 수록된 임상사례 및 의안분석」. 의사학. 2015;24(3):581-620.
21) 류정아.「原典學 교육에서의 背講시험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8;31(1):57-78.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다만, 현 한의과대학의 주요 교재들을 망라하고 있는 한의시맨틱검색에서 제공하는 독활의 주치증상들인 관절의 운동제한[關節屈伸不利], 머리와 몸이 아프며(頭痛身痛), 무릎과 허리 통증[腰膝疼痛], 저리고 아픈 증상[風寒濕痺] 및 오한(惡寒)과 발열(發熱)의 증상들과 『동의보감』 외형편, 잡병편에서 다루고 있는 증상들을 비교해 본다면 『동의보감』의 각종 병증들은 보다 다양하고 세밀하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외형편과 잡병편에 있는 독활의 주치증들이 학생들에게 익숙한 거풍제습, 해표지통이라는 효능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쉬운 반면, 내경편에서 활용되고 있는 독활의 주치증들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내경편에서 독활을 사용하는 병증은 불면[虛煩不睡, 魂離不睡], 갑작스럽게 목소리가 안나오는 것[卒然無音], 붕루(崩漏), 각종 기생충[諸蟲], 설사(泄瀉), 노인변비[老人秘結]이고, 사용된 처방은 獨活湯, 射干湯, 升陽調經湯, 升陽除濕湯, 柴胡調經湯, 全生活血湯, 蓮心散, 疏風順氣元 등이다.

표 2. 『동의보감』각 문의 독활을 활용하는 처방

편명	세부 목차		독활을 포함한 처방	출처
內景篇	夢	虛煩不睡	獨活湯	『本事』
		魂離不睡	獨活湯	『本事』
	聲音	卒然無音	射干湯	『仲景』
	胞	崩漏治法	升陽調經湯	『入門』
			升陽除濕湯	『東垣』
			柴胡調經湯	『東垣』
			全生活血湯	『東垣』
	蟲	治諸蟲藥	蓮心散	『丹心』
	大便	泄瀉宜用升陽之藥		『東垣』
		老人秘結	疏風順氣元	『得效』
外形篇	頭	頭痛當分六經		『東垣』
	眼	內障	羚羊角丸	『類聚』
		瞖膜	明目地黃丸	『回春』
			補陽湯	『東垣』
			連柏益陰丸	『東垣』
		通治眼病藥	通聖散加減法	『回春』
	耳	耳重聽	聰耳湯	『醫鑑』
	鼻	鼻塞	麗澤通氣湯	『河間』
	牙齒	牙齒動搖	獨活散	『丹心』
	頸項	項强	回首散	『醫鑑』
			羌活勝濕湯	『東垣』
	腰	挫閃腰痛	獨活湯	『東垣』
		瘀血腰痛	川芎肉桂湯	『東垣』
			地龍散	『東垣』
	皮	麻木	冲和補氣湯	『東垣』
	手	肩臂病因	活絡湯	『得效』
			五靈脂散	『得效』
		痰飮多爲臂痛	芎活湯	『得效』
	足	脚氣治法		『醫鑑』
			獨活寄生湯	『入門』
			羌活導滯湯	『東垣』
			獨活寄生湯	『回春』
			加味蒼柏散	『入門』
		脚氣危證	三脘散	『活人』
		鶴膝風	獨活寄生湯	『入門』
	前陰	陰囊濕痒	四生散	『局方』
	後陰	腸風臟毒	升陽補胃湯	『東垣』

medicalhistory.jams.or.kr
https://doi.org/10.15521/jkmh.2020.33.1.001

雜病篇	風	風有中血脈中腑中臟之異	排風湯	『局方』
			加減排風湯	『醫鑑』
			大秦艽湯	『易老』
			羌活愈風湯	『丹心』
		精神蒙昧	四白丹	『易老』
			祛風至寶丹	『丹心』
		口眼喎斜	理氣祛風散	『醫鑑』
		手足癱瘓	加味大補湯	『回春』
		中風熱證	天麻丸	『醫鑑』
			人參羌活散	『得效』
		中風虛證	萬金湯	『得效』
		風非大汗則不除	續命煮散	『丹心』
		諸風通治	木香保命丹	『御藥』
		三痺	防風湯	『宣明』
			三痺湯	『入門』
		痺證病名及用藥	羚羊角湯	『河間』
		歷節風治法	大羌活湯	『正傳』
			靈仙除痛飮	『醫鑑』
			拈痛散	『寶鑑』
			當歸散	『醫林』
		破傷風治法		『丹心』
			朱砂指甲散	『入門』
		破傷風之治同傷寒三法	防風湯	『正傳』
		單方	獨活	『本草』
			羌活	『本草』
			羌活	『本草』
	寒	兩感傷寒爲死證	大羌活湯	『東垣』
		傷寒表證	人參敗毒散	『醫鑑』
	火	火有上中下三焦之異	淸火湯	『醫鑑』
		五心熱	升陽散火湯	『東垣』
	內傷	勞倦傷治法	升陽益胃湯	『東垣』
		食後昏困	升陽補氣湯	『東垣』
	積聚	積聚治法	增損五積丸	『入門』
			奔豚丸	『正傳』
	浮腫	水腫治法	復元丹	『得效』
	黃疸	女勞疸	腎疸湯	『正傳』
	瘟疫	瘟疫治法	荊防敗毒散	『得效』
			聖散子	『活人』
			加味敗毒散	『正傳』
		辟瘟疫豫防法	太倉公辟瘟丹	『回春』
			神聖辟瘟丹	『醫鑑』
	癰疽	治癰疽大法	五香連翹湯	『丹心』
			黃連消毒散	『入門』
		癰疽內托法	升陽益胃散	『東垣』
		癰疽五發證	連翹敗毒散	『醫鑑』
			當歸羌活湯	『入門』
		癰疽湯洗法	解毒湯	『得效』
		流注骨疽	榮衛返魂湯	『入門』
		疔疽	迴瘡蟾酥錠子	『精義』
			二活散	『正傳』
	諸瘡	大風瘡	磨風丸	『類聚』
			大麻風丸	『入門』
			紫雲風丸	『入門』

		結核	消解散	『回春』
		人面瘡	大苦參丸	『入門』
		陰蝕瘡	消疳敗毒散	『回春』
			洗下疳瘡方	『入門』
		有名無名諸惡瘡	疏風解毒散	『直指』
	救急	鬼魘		『入門』
	婦人	子癇	羚羊角湯	『正傳』
		産後風痙	獨活酒	『本草』
	小兒	癲癇	沈香天麻湯	『寶鑑』
		諸熱	人參羌活散	『綱目』
		龜背龜胸	松藥丹	『得效』
			枳殼丸	『丹心』
		發熱三朝	加味敗毒散	『醫鑑』

3.『동의보감』내경편 독활의 용례

1) 불면[夢]

허번으로 잠을 못자고[虛煩不睡], 혼이 떠나서 잠을 못자는[魂離不睡] 두 증상에 모두 독활탕을 사용하고 있다. 허번은 가슴이 답답하고 편안하지 않은 것[22], 열감만 있는 것은 허번[23]이고, 일어나든 누워있든 불안하고 편하게 잠들지 못하는 것은 번[24]이라 하였다. 전광과 상한에서도 잠을 못잔다[25]고 하였다.

독활탕은 獨活 외에 羌活, 人參, 前胡, 細辛, 半夏, 沙參, 五味子, 白茯苓, 酸棗仁(炒), 甘草와 生薑, 烏梅를 넣는 처방이다.

2)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卒然無音]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風冷에 의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사간탕은 유행병이나 갑작스런 추위로 열이 안으로 잠복되어 기침하고, 숨을 쉬지 못하며, 목소리가 나오지 않거나, 마른기침을 하고 침이 마르며 목구멍이 막힌 것을 치료한다.

사간탕은 半夏, 杏仁, 陳皮, 桂心, 枳實, 射干, 當歸, 獨活, 麻黃, 紫菀, 甘草와 生薑을 넣는 처방이다.

3) 붕루(崩漏)

위기(胃氣)가 아래로 처져 혈붕이 되면 승양조경탕, 익위승양탕, 승양제습탕, 시호조경탕[26]을 쓰라 하였는데, 이 가운데 승양조경탕, 승양제습탕, 시호조경탕에서 독활을 사용하고 있다.

승양조경탕은 柴胡, 羌活, 蒼朮, 黃芪, 當歸, 防風, 升麻, 藁本, 甘草, 蔓荊子에 獨活을 석 푼만 넣는 처방이다. 승양제습탕은 黃芪, 蒼朮, 羌活, 柴胡, 升麻, 防風, 藁本, 甘草(炙), 蔓荊子에 독활과 당귀를 석 푼만 넣는 처방이다. 시호조경탕은 독활 외에 蒼朮, 柴胡, 羌活, 藁本, 升麻, 葛根, 當歸, 甘草, 紅花를 넣는 처방이다.

또 붕루로 어지러운 증상에 전생활혈탕을 쓰라 하였는데, 독활 외에 白芍藥, 升麻, 防風, 羌活, 柴胡, 當歸身, 葛根, 甘草, 藁本, 川芎, 生地黃, 熟地黃, 蔓荊子, 細辛, 紅花를 넣는 처방이다.

4) 노채(勞瘵)

노채를 치료에 蓮心散을 쓴다. 연심산은 독활 외에 當歸, 黃芪, 甘草, 鱉甲醋(炙), 前胡, 柴胡, 羌活, 防風, 防己, 茯苓, 半夏, 黃芩, 陳皮, 阿膠珠, 官桂, 芍藥, 麻黃(不去根節), 杏仁, 蓮花藥, 南星, 川芎, 枳殼, 芫花 및 생강, 대추를 넣는 처방이다.

22) 虛煩者, 心胸煩擾而不寧也.
23) 但獨熱者, 虛煩也.
24) 起臥不安, 睡不穩, 謂之煩.
25) 癲狂不睡, 傷寒不睡.
26) 胃氣下陷, 經水暴下, 宜升陽調經湯, 益胃升陽湯, 升陽除濕湯, 柴胡調經湯.

medicalhistory.jams.or.kr
https://doi.org/10.15521/jkmh.2020.33.1.001

5) 설사(泄瀉)

설사에는 승양시키는 약을 쓰라[27]고 하였다.

승양시키는 약으로 처방 이름 없이 독활과 함께 羌活, 獨活, 升麻, 防風, 甘草(炙)를 넣는 처방을 제시하였다.

6) 노인의 변비[老人秘結]

노인의 변비는 대황으로 설사를 시키면 증상이 악화[28]되므로 소풍순기환을 쓴다.

소풍순기환은 독활 외에 大黃(일곱번 찌고 말린 것), 車前子(炒), 郁李仁, 檳榔, 麻子仁(微炒), 兎絲子(酒製), 牛膝(酒洗), 山藥, 山茱萸, 枳殼·防風을 넣는 처방이다.

내경편의 증상 중 불면, 갑작스럽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증상, 노채는 風, 熱, 冷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체 내부의 질병을 다루는 내경편의 특징을 반영하듯 독활을 사용하는 내경편의 증상들은 풍을 제거[祛風], 습을 제거[除濕], 표를 풀어주는[解表] 효능과 연결되지만, 통증을 제거(止痛)하는 효능과는 맞닿아 있지 않다.

내경편 중 붕루와 설사의 증상을 치료하는 독활은 교과서에 기술된 거풍제습, 해표지통의 효능과는 거리가 멀다. 붕루의 승양조경탕은 원출전을 『入門』[29]이라 하였고, 승양제습탕, 시호조경탕, 전생활혈탕, 설사의 승양하는 약을 사용하라고 한 4개의 원출전은 모두 『東垣』이다. 비록 승양조경탕은 『의학입문』에서 인용하였지만 처방의 구성과 처방명명은 모두 동원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특히 승양조경탕, 승양제습탕에서 독활은 석푼만 넣어 보중익기탕에서 시호, 승마처럼 陽氣를 끌어올리는[升陽]하는 역할로 활용되었다. 붕루와 설사의 처방에 활용된 독활은 모두 양기를 끌어올리는 약재 조합의 하나이다.

본초의 특성을 살펴서 昇降浮沈의 역할을 하는 개념은 장원소, 이동원의 본초이론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한의시맨틱검색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장원소, 이동원의 본초 이론을 기술한 『湯液本草』은 독활이 "독활의 기는 두텁고, 미가 옅어서 올라간다."[30]고 하였는데, 이는 승양조경탕, 승양제습탕, 시호조경탕 및 설사에서의 처방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또 "어지러움증에 독활이 없이는 치료할 수 없다."[31]고 하였으며, 이는 전생활혈탕이 붕루로 인한 어지러움증을 치료하는 이론적 배경이 된다.

Ⅲ. 결론 및 고찰

한의학고전DB를 통해 『동의보감』에서 독활을 검색해보면 모두 121회 언급되며, 탕액편과 중복되는 것, 다른 약재를 설명할 때 언급되는 것을 제외하고 내경, 외형, 잡병의 질병 부분에만 모두 103건의 처방을 기술하고 있다.

독활을 활용하는 103건의 처방은 東垣 19건, 入門 15건, 醫鑑 12건, 得效 10건, 丹心 8건, 正傳, 回春 각 7건, 本草 4건, 寶鑑, 局方, 本事, 河間, 活人, 直指, 類聚 각 2건, 仲景, 宣明, 御藥, 易老, 精義, 綱目, 醫林 각 1건, 총 22종의 의서에서 인용하였다.

한의과대학에서 사용되는 주요 교재들에서 독활은 거풍습지비통약(祛風濕止痺痛藥)의 대표 약재로 거풍제습(祛風除濕), 해표지통(解表止痛)의 두 가지 효능으로 기술된다. 주요 교과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한의시맨틱검색에서는 독활의 주요 치료증상으로 관절의 운동제한[關節屈伸不利], 머리와 몸이 아프며(頭痛身痛), 무릎과 허리 통증[腰膝疼痛], 저리고 아픈 증상[風寒濕痺] 및 오한(惡寒)과 발열(發熱)을 언급하였다.

외형편에 기술된 頭痛, 눈의 內障, 瞖膜, 각종 眼病, 귀의 耳重聽, 코의 鼻塞, 치아의 動搖, 項强, 挫閃腰痛, 瘀血腰痛, 痲木, 肩臂病, 臂痛, 脚氣, 鶴膝風, 陰囊濕痒, 腸風臟毒의 병증과 잡병편에 기술된 風病의 精神蒙昧, 口眼喎斜, 手足癱瘓, 中風熱證, 中風虛證, 기타 풍증, 痺證, 歷節風, 破傷風, 상한의 兩感傷寒, 傷寒表證, 火病의 五心熱, 내상의 勞倦傷 및 食後昏困, 積聚, 水腫, 黃疸, 瘟疫, 癰疽, 流注骨疽, 疔疽, 大風瘡, 結核, 人面瘡, 陰蝕瘡, 각종 惡瘡, 鬼魘, 임신 중 子癇, 출산 후의 風痓, 소아의 癲癇, 각종 熱證, 龜背龜胸의

27) 泄瀉宜用升陽之藥
28) 老人藏府秘澁, 不可用大黃. 緣老人津液少, 所以秘澁, 若服大黃以瀉之, 津液皆去, 定須再秘甚於前.
29) 이동원의 승양조경탕은 다른 처방임.
30) 王好古.『湯液本草, 本草名著集成』. 北京:華夏出版社. 1998: 20-21. "氣厚味薄, 升也, 苦辛."
31) 王好古.『湯液本草, 本草名著集成』. 北京:華夏出版社. 1998: 20-21. "頭眩目暈, 非此不能除."

병증들은 교과서 상의 거풍제습, 해표지통이라는 독활의 효능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내경편에서 독활을 활용하고 있는 항목은 불면[虛煩不睡, 魂離不睡], 갑작스럽게 목소리가 안나오는 것[卒然無音], 붕루(崩漏), 각종 기생충[諸蟲], 설사(泄瀉), 노인변비[老人秘結]이고, 獨活湯, 射干湯, 升陽調經湯, 升陽除濕湯, 柴胡調經湯, 全生活血湯, 蓮心散, 疏風順氣元 등의 처방을 사용하고 있다. 내경편의 붕루와 설사에서는 이동원의 본초이론체계를 활용하여, 독활이 양기를 끌어올리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한의학의 교재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단순히 나열되었던 경험적인 지식들을 추상화하여 체계화하는 과정을 거쳐 기술되었는데, 본초의 경우 다양한 主治證들을 몇몇 效能으로 포괄하여 분류하였다. 이것은 지식을 체계화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학생들이 한의학 지식을 학습해나갈 때에는 임상현장과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동의보감』에 인용된 독활의 경우만 해도 103가지의 조금씩 다른 주치증을 기술하고 있는데, 몇몇 추상화된 개념, 즉 효능으로 모든 것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독활의 경우 거풍제습, 해표지통의 효능 외에 승양시키는 효능으로 붕루와 설사에 활용했듯 추상화된 개념으로 접근할 때에는 세세한 임상현장의 모습들 중 놓치는 것이 생기거나 학생들이 맥락화된 이해, 기초와 임상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키워나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동의보감』 속 독활의 예에서 봤듯이 본초지식을 교과서로 접근할 때보다 개별 의서의 각론에 인용된 내용들을 따라가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임상현장의 모습과 만날 수 있다. 최근 한의과대학 학생들 사이에 원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거나, 한의학 교육현장과 직무현장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불만이 점차로 늘어가고 있다. 이를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기초와 임상 교육의 연계를 위해 구체적인 임상현장의 모습을 찾아내는 의서읽기가 필요하다.

추상적인 이론을 따라가는 의서읽기가 아니라 구체화된 임상현장의 모습을 찾아가는 의서읽기를 통해 한의과대학 내에서 역량중심 한의학교육의 실천방안 중 하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뿐 아니라 구체화된 치료경험들을 읽어내어 현대사회에 필요한 여러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틀 또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0006167)”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입니다.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이다슬, 강사행, 이보리, 나혜림, 원광허브 심현재, 김성오, 김동근 연구원께서 연구 방향설정 및 정리에 도움주신 것에 대해, 그리고 영문초록 작성에 도움을 주신 원광대학교 김재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김기봉, 김장현, 임병묵, 신병철, 신상우, 김근우 외.「한의사 2차 직무분석연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14.
2. 김남일, 요시다 가즈히로, 사카이 시즈, 강연석, 김호, 김성수 외.『동의보감의 지식 체계와 동아시아 의과학』. 성남: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6:18-20.
3. 김남일.「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사학 교육과 연구」. 2018. 06. 한국의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
4. 류정아.「原典學 교육에서의 背講시험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8;31(1):57-78.
5. 백유상, 김남일.「원전의사학 교육에 대한 한의과대학 학부생의 의식조사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23(3):111-125.
6. 신상우, 박종배.「국제적인 의학교육 역량체계 비교를 통한 한의학교육에의 시사점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7;31(1):36-45.
7. 신익균, 정욱진, 박이병, 박귀화, 유찬종, 박정율 외.『의학교육의 개혁과 미래』. 서울:학지사. 2014.
8. 오재근.「조선의관 허준의 임상의학 사유 엿보기: 동의보감에 수록된 임상사례 및 의안분석」. 의사학. 2015;24(3):581-620.
9. 王好古.『湯液本草, 本草名著集成』. 北京:華夏出版社. 1998:20-21.
10. 임철일, 한형종, 홍지성, 강연석.「2016 한의사 역량모델 정립 및 활용 방안」. 대한한의학회지. 2016;37(1):101-113.
11. 최정빈, 김용진.「FlippedLearning을 통한 원전학 교육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8;31(2):1-16.

medicalhistory.jams.or.kr
https://doi.org/10.15521/jkmh.2020.33.1.001

12. 한국한의학연구원. 『내 손안에 동의보감: 원문강독편』. 광주:수퍼노바. 2017.
13.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시맨틱검색(https://cis.kiom.re.kr/semantic). 2019.05.01.
14.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고전DB(https://mediclassics.kr). 2019.05.01.
15. 홍지성, 강연석. 「북미 의학교육 사례가 한의학 교육에 주는 시사점」. 한국의사학회지. 2018;31(2):91-101.
16. 홍지성. 「재구조화 관점에서 본 역량중심 한의학교육: 의생명과학과 전문직업성 교육의 강화」.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7. Junyeop Lee, Ji Han Han, MinSeong Kim, Hwan Seong Lee, Sang Yun Han Soo Jin Lee, Han Chae, et al. 「TeachingYin-Yang biopsychology using the animation, “Pororo the Little Penguin”」.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Medicine. 2020;33:101037.
18. Kang Yeonseok.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edicine Based on Time Classification」. China perspectives, 2011;3(87):33-41.